

# “아들들 일하라는 잔소리가 상 받게 했다”

제작자 브래드 피트 첫 만남에 “우리 영화 찍을때 어디 있었냐”

인생 최고의 순간이냐는 물음엔 “최고 싫다, 그냥 최종(最中)하자”

“무지개도 7가지색...모두 평등” ‘선한 영향력’ 올림의 메시지

“오스카를 받았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영여정 되는 건 아니니까.”

역시 거침이 없었다. 74세의 나이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은 순간에도 배우 윤여정은 어느 시선과 질문에도 막히지 않았다. 이제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직설적이면서도 위트 넘치는 말로 영화관계자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가 지켜보는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를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솔직하고 노련한 입담을 드러내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서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들로부터 인정받아 영광이다”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소감 등을 포

함한 ‘윤여정 어록’이 재탄생할 기세다.

● “브래드 피트, 마침내 만났네!”

윤여정은 26일(한국시간) 오전 9시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그에게 트로피를 건넨 시상자는 ‘미나리’의 제작사 플랜B를 이끄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였다. 작품의 배우와 제작자가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윤여정은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마침내 만났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에는 어디 있었던 거냐”며 농담을 건넨 웃음을 자아냈다.

유머러스한 매력은 그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내 이름을 ‘여여’ 혹은 ‘정’이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은 윤여정”이라며 “오늘 밤에는 이름을 잘못 부른 분들이 모두 용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홀로 키운 두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말에서는 더욱 큰 장대 웃음이 터졌다. 그는 “두 아들이 내게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한다. 아들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나에게는 대본이 ‘성경’”

윤여정은 시상식 직후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FPAS)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과 주LA한국총영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 각각 나섰다. 그는 “원래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데, (무대 위에서는)영문장장이었다”고 부끄러워해 취재를 웃게 했다. “제작자로서 다음에는 돈(제작비)을 더 써달라고 했더니 ‘아주 조금’ 더 쓰겠다며 잘 빠져나가더라. 크게 쓰겠다고는 안 하던데”라며 브래드 피트와 얽힌 일화도 재치 있게 전했다.

연기 철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진지함과 비장함까지 묻어낸 어투로 답했다. 윤여정은 “나의 연기는 열등의식에서 시작했다”며 “먹고 살려고 한 연기가 내게는 절실했다. 대본은 내게 성경과도 같았다”고 돌이켰다. “누군가가 브로드웨이로 가는 길을 묻자 ‘연습(Practice)’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말이 있다.

아무튼 나도 많이 노력했다”며 지나간 세월 속에 묻은 땀의 가치를 강조했다.

관객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나게 된 부담감에 대해서도 솔직했다. “상을 타서 성원에 보답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처음 받는 스트레스여서 별로 즐겁지는 않았다”며 “김연아나 2002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의 심정을 알았다”고 말했다.

모두 평등하고 행복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배우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두드러진 아시아권 영화 약진과 할리우드의 다양성에 대해 묻자 “남성과 여성, 백인·흑인·황인종, 게이와 아님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다”며 “하물며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지 않나. 우리 모두 평등하다”고 답했다. 특히 오스카 수상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선 강한 소신을 표하며 이날 압권의 장면을 연출했다.

“나는 최고란 말이 싫어요. 최고나 1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최중(最中)’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동등하게 살면 안 될까? 나, 너무 사회주의자 같아?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윤여정 주요 수상 내역 (총 42개)	
시기 (한국시간)	내역
2020년 12월2일	제1회 미국 섀넬 필름 서울 어워드 여우조연상
2020년 12월14일	보스턴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2020년 12월21일	LA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2021년 1월19일	샌프란시스코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2021년 1월22일	흑인영화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2021년 1월27일	전미비평가위원회(NBR) 여우조연상
2021년 2월9일	워싱턴DC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2021년 4월5일	미국배우조합(SAG) 여우조연상
2021년 4월12일	영국 아카데미(BAFTA) 여우조연상
2021년 4월26일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 영화 ‘미나리’ 미국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 모두 111개 수상



## “20초 안에 ‘감독’에 대해 설명해보라”...감독상 시상자 봉준호 또 입담 과시

“만약 내가 이 질문 받는다면 회피” 웃음꽃 정이삭 감독은 “삶에 대한 응답” 소신 답변

지난해 오스카의 주역이었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1년 2개월 만에 다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나섰다. “1인칭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욱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감독상 트로피를 5등분해서 (경쟁후보인)다른

감독과 나누고 싶다”는 등 재치 가득한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올해 또 다시 입담을 과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지 대신 서울에서 이원 생중계 화상을 통해 감독상 시상자로 나선 봉준호 감독은 5명의 후보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은 물론 전 세계 시

청자에게 자신의 말이 쉽게 가닿을 수 있도록 통역 실력을 발휘해 눈길을 모은 사론 최 통역가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의 한 상영관 객석 사이에 섰다.

이날 봉 감독은 후보에 오른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을 비롯해 ‘여너더 라운드’ 토마스 빈터베르그·‘팬크’ 데이비드 핀처·‘노매드랜드’ 클로이 자오·‘프리미싱 영

우먼’ 에메랄드 페넬 감독 등 5명의 후보에게 “감독이란 무엇일까. 이를 20초 안에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저 자신도 감독이지만 짧고 명쾌하게 답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만약 내가 인터뷰 같은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쑥스럽고 오그라들어 얼버무리거나 회피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화답하는 감독들의 답변에서도 개성이 묻어났다.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커먼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라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맞는 방법과 틀린 방법”이라고 짧으면서도 강렬한 답을 내놨다. 정이삭 감독은 “영화는 삶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러들이 실제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1

2

3

4

26일(한국시간) 윤여정에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화 ‘미나리’의 주역들은 이날도 ‘가족’이었다. 1. 극중 모녀지간 윤여정(왼쪽)과 한예리가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서 네이비와 레드빛 드레스로 단아함을 뽐내고 있다. 2. 남우조연상 후보 스티븐 연(왼쪽)과 부인. 3. 연출자 정이삭 감독(왼쪽)과 부인도 시상식에 참석했다. 4. 아역 앨런 김(왼쪽)이 ‘미나리’의 제작자 크리스티나 오도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미국) AP·뉴시스

### 우아함 뽐낸 백발의 윤여정...세계가 ‘윤며들었다’

**레드카펫 풍경들**

백발과 네이비 드레스의 조화, 여기에 레드립까지. 평소 웃 입기를 좋아하는 70대 노장의 패션 센스는 시상식 레드카펫에서도 빛났다. 윤여정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1시간 전 LA 유니온 스테이션에 깔린 레드카펫을 밟았다. 백발을 가리지 않고 업스타일 헤어로 오히려 우아함을 강조한 그녀는 단아함이 돋보이는 네이비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장식했다. 드레스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마르 할림(M armar Halim) 브랜드로, 2017년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체구를 가리기 위해 가슴 아래에서부터 발끝까지 불륨이 풍성하게 퍼진 스타일이었다.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하고, 와인톤 립스틱으로는 화려함을 뽐냈다. 쇼파드 오프 주얼리 귀걸이, 손에는 드레스와 비슷한 컬러의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를 들었다. 구두는 보테가 베네타를 신었다. 영화 ‘미나리’에서 딸로 호흡을 맞춘 한예리도 함께했다. 윤여정이 레드카펫에서 “촬영 당시 속소를 빌려 같이 지냈는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은 ‘모녀’의 다정함을 과시했다. 한예리는 레드빛 톤드레스를 입었다. 소매 없는 하이넥의 톤드레스는 루이

뷔통의 2018년 F/W 제품으로 가슴 한쪽 부분에 독특한 디자인의 버튼이 달렸다. 은색 귀걸이와 반지로 스타일을 마무리했다. 또 다른 ‘가족’들도 레드카펫을 밟았다. ‘미나리’ 연출자 정이삭 감독과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각각 아내와 함께 식장으로 향했다. 스티븐 연은 “어머니가 배우 일을 항상 응원했다”면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외쳐 눈길을 끌었다. 극중 막내 아들 역을 연기한 앨런 김과 제작자 크리스티나 오도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밟았다. 앨런 김은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는 귀여운 포즈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고, 크리스티나 오도는 고풍이 달린 퓨전 스타일의 한복 차림을 입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